

HAUS OFMA TTERS

AGAGA
"001"

AUGUST

Issue I

2023



hausofmatters_world_project





A



Recent Releases to Listen to
(June 30 - July 30)

Page 3



1 Left

Full Length Album Reviews
Pink Tape / MICHAEL / Magic 2 / UTOPIA

Page 3

Sold Out



Haus Of Matters Exclusive
Featured Articles

Page 3

Sold Out

Editors' Picks
6 Albums Introduced by KHL

Page 3

Sold Out

<W/HAUS OF MATTERS>는 힙합 매거진 팀 KHL이 2023년 8월 7일
처음 선보이는 국내 힙합 월간지 하우스 오브 매터스
<HAUS OF MATTERS>의 국외판 매거진이다.



222 Lil Tjay

[Add to Cart](#)


Sunburn Dominic Fike

[Add to Cart](#)

Details

마지막 앨범 2021년 4월 2일 <Destined 2 Win> 이후 2022년 6월 2일 릴 티제이(Lil Tjay)는 7발의 총을 맞고 생사를 넘나들었다. 앨범 표지에서 보이는 거 같아 정확히 새벽 2시 22분 병원에 도착하여 사망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 같다. 당시 죽음은 물론 운이 좋을 경우 하반신마비가 언급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살아있는 거 자체가 기적이었다.

6월 22일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을 재현한 "June 22nd", NY Drill이 콘셉트인 "Project Wall"과 "Bla Bla", 충격 사건 이후 겪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Scared 2 Be Lonely", 살려준 신에게 고마워하고 건재함을 알리는 "Heart Felt Soul" 등 대체적인 분위기는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신에 대한 예찬과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를 보여주려고 한거 같다.

사운드는 잘게 자른 멜로디 트랩 소울 샘플링과 어쿠스틱 기타, 투박한 피아노와 긴 여운을 남기는 리버브 된 보컬이 이 앨범을 감싸는데 전작들과 비교하면 좀 더 감정을 터치하는 사운드로 막상 자체는 실력이 오른 거 같다. 하지만 지나친 동어반복과 트랩 샘플링 사운드로 시작해 투박한 피아노 건반으로 진행되는 곡의 구조는 변함이 없으며, 뉴욕의 새로운 유망주로 불리던 릴 티제이에 비해 계속 제자리며 아쉬운 앨범이었다.

Editor 45

Details

2010년대 후반 얼터너티브 힙합씬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기대주로 떠올랐던 래퍼 도미닉 파이크(Dominic Fike)가 팝 평크, 팝 록씬의 터줏대감 Weezer의 손을 잡으며 앨범 <Sunburn>을 들고 돌아왔다.

약 40분이라는 현재 시대에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절한 러닝타임의 이 앨범이 이어지는 내내 도미닉 파이크는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쿠스틱한 기타의 사운드에 의존해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노래하는 랙스타로 변신했다. 어두웠던 과거를 돌아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어찌 보면 인생의 회고를 담은 앨범의 정석적인 형태에 가깝지만 <Sunburn>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자신의 고향 '플로리다'의 뜨거운 햇빛을 한 스푼 첨가한듯한 사운드는 이 앨범을 충분히 즐길 이유중에 하나였다.

후에 누가 "이 앨범이 명반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면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던지기엔 힘들겠지만 락과 힙합 음악의 요소가 적절히 섞인 여름이 되면 다시 또 꺼내 듣기 좋은 훌륭한 앨범이 도미닉 파이크의 손에서 나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Editor SongChico

HBO의 <유포리아> 속 엘리엇의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로서의 도미닉 파이크, 사실 릴 티제이 역시 한때 배우를 꿈꿨다고 합니다.

릴 티제이의 어린 시절 꿈은 래퍼나 가수가 아닌 그저 돈을 잘버는 유명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배우가 된 자신의 모습을 종종 성상하곤 했다고 합니다.

Editor's Note by SNXO



SCARING THE HOES: DLC PACK

JPEGMAFIA &
Danny Brown

[Add to Cart](#)

Deta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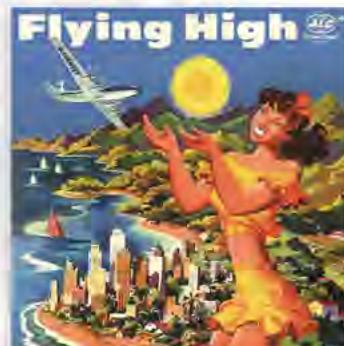
올해 3월 24일, 제이펙마피아(JPEGMAFIA)와 대니 브라운(Danny Brown)은 학술 앨범 <SCARING THE HOES>을 발표했다. 그리고 4달이 안되는 짧은 기간 내에 앨범은 벌써 명반이라는 칭호를 얻은 듯하다. 장르의 최전선에 서있는 아티스트들인만큼 당연한 일이지도 모르겠으나, '실험적'이라는 카테고리를 공유하고 있을 뿐 둘의 음악색은 상이하기에 이러한 고평가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앨범에 대한 대다수의 호평 사이에는 언제나 "대니가 폐기의 아성에 밀렸다"는 아쉬움이 끼어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런 아쉬움에 구태여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DLC 팩은 그 작디 작은 볼륨에도 불구하고 본편을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듯한 만족도를 선사한다. 다양한 장르의 샘플을 혼란스럽게 배치해대며 두터운 베이스와 개성적인 드럼셋을 더하는 폐기 특유의 구성은 여전하며, 각 트랙들이 사운드 면에서 본편의 트랙에 하나씩 대비되는 것은 꽤나 재미있는 점이다. 강점을 우직하게 밀고 나간 결과 일말의 불만조차 사라질 지경이다. 대니 브라운은 이전보다도 훨씬 정력적인 플로우를 소화하고, 제이펙마피아는 게임의 최고 샘플러가 된 듯하다.

주류 힙합과는 가장 멀던 두 아티스트는 이제 고일대로 고인 힙합 씬에서 흔치 않게 흥미로운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었다.

물론 창녀들을 벌벌 겁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Editor 온암



Flying High

The Alchemist

[Add to Cart](#)

Details

알케미스트(The Alchemist)가 씬에 입성한 지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어간다. Havoc을 계승한 실력파 프로듀서에서 드럼리스와 네오 블루스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는 샘플을 택하는 탁월한 감각으로 오직 최상급의 비트만을 제작해왔다. 그런 그가 여덟 곡이 수록된 EP로 복귀했다.

그의 솔로 앨범에는 인스트러멘탈 트랙을 함께 수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사실상 트랙수는 4개에 불과한 셈이다. 그 4개의 네오 블루스 트랙에는 Earl Sweatshirt, billy woods, Boldy James, MIKE, Larry June 등 익숙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알케미스트의 비트 위 전개하는 랩 또한 힘 빠진 목소리로 내뱉는 추상 라임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헌데 그것이 너무나도 좋다.

고전 흑인 음악 샘플이 13분 26초 동안 최면술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느끼며 사색에 젖게 된다. 알케미스트라는 브랜드명과 캘리포니아 남부를 그린 유나이티드 항공의 포스터를 접했을 때 기대했던 감흥을, 이 앨범은 그대로 선사한다. 이러한 작품에 "경이롭다"는 평을 매길 수는 없으나, 적어도 "만족스럽다"는 말 정도는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역시나 아는 맛이 무서운 법이다.

Editor 온암

SCARING
THE HOES
5000 PUFFS

WARNING:
This product will
scare hoes. Scaring
the hoes will
become addictive.

JPEGMAFIA
SCARING THE
HOES
DLC PAC!

Add to Cart

ils

3월 24일, JPEGMAFIA와 Da
SCARING THE HOES>을 발표
짧은 기간 내에 앨범은 벌
얻은 듯하다. 장르의 최
일이지도 모르겠으
고 있을 뿐 둘의 음악
훨씬 웃도는 소리

대한 대다
y가 Peg
사자들
패드
여

Pink Tape

- 온암

적어도 한 속
역시나 아는 맛이

- 온암

이런 작품에 "경이롭다"는 평을 매길 수는 없으나,
그대는 말 정도는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이 13분
이며 사색에 젖게 된
경과 캘리포니아 남부를
포스터를 접했을 때 기대했던
이 일상으로 새로 선사한다.



Pink Tape

Lil Uzi Vert

1 Flooded The Face	10 I Gotta	19 PLuto to Mars
2 Suicide Doors	11 Endless Fashion	20 Patience
3 Aye	12 Mama, I'm Sorry	21 Days Come and Go
4 Crush Em	13 All Alone	22 Rehab
5 Amped	14 Nakamura	23 The End
6 x2	15 Just Wanna Rock	24 Zoom
7 Died and Came Back	16 Fire Alarm	25 Of Course
8 Spin Again	17 CS	26 SHardai
9 That Fiya	18 Werewolf	

Editor 45

2023년 상반기는 거의 20년 만에 빌보드차트에서 힙합부분 1위를 한 앨범이 없을 정도로 유례없는 기간이었다. 2020년 Playboi Carti의 <Whole Lotta Red>를 필두로 한 레이지 장르를 뒤로하고 트랩의 발전은 없다시피 했고 수많은 양상형 트랩과 발전 없는 사운드로 인해 대중들은 트랩에 질려있었다. 그간 3년을 뒤로하고 릴 우지 버트(Lil Uzi Vert)의 <Pink Tape>과 Travis Scott의 <UTOPIA>는 "죽어가는 트랩을 살리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될까?"라는 기대로 많은 힙합 팬들의 기대를 샀다.

우지는 과거 <Luv Is Rage 2>를 통해 팝과 트랩을 자신만의 색으로 섞어 힙합의 경계선을 확장시켰다. 이번 앨범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대중음악과 트랩을 섞었지만, 그동안 시도를 안 해본 일본풍 음악, 젬지클럽, 레이지, 얼터너티브 힙합과 결정적으론 뉴메탈, 하드 록을 필두로 구성했다. 12번 트랙을 전으로 하이톤의 레이지와 락과 메탈을 결합한 사운드를 구성하는데, 샤우팅과 귀를 찌르는 강렬한 사운드들이 그동안 본 적 없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실험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기존에는 일본풍 음악을 멜로디 중심의 아케이드식 사운드로 만들어 냈다면 다른 방식을 도모했다. 예로 "The End" 가 대표적이지만 이외에도 기본적인 구성은 뉴메탈과 하드 록으로 하되, 앨범의 전체적인 향은 약간씩 아시안 음악의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또 귀에 익숙한 곡들을 샘플링을 함으로써 대중성도 챙겼다. 젬지클럽을 새로운 트렌드로 만든 "Just Wanna Rock", 원래 하던 스타일의 "Pluto to Mars"와 "Days Come and Go", 순수 락적인 면모만 담은 "CS"와 "Werewolf" 등 가능한 다채로운 사운드로 앨범을 장식하려 했던 거 같다.

이번 그의 앨범을 듣고 생각난 것은 과거 N.E.R.D의 <In Search Of...> 연장선 같았으며 이 둘의 공통점은 힙합과 락적인 요소와 힙합, 팝을 섞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지의 이번 앨범은 위 앨범보다 더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듯하며, 사운드 내 장치들의 구성이 하나하나 노골적으로 귀에 박힌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앨범을 통해 또 하나의 릴 우지 버트의 독자적인 라인을 구축해낸 거 같다. 이번 앨범의 피처링을 도맡은 Don Toliver, BABYMETAL, Nicki Minaj 등의 피처링 또한 곡 내 부족한 향이나 부자연스러운 면을 매끄럽게 보완해 주거나 절충해 주며 앨범 내 유기성과 완성도를 높여준 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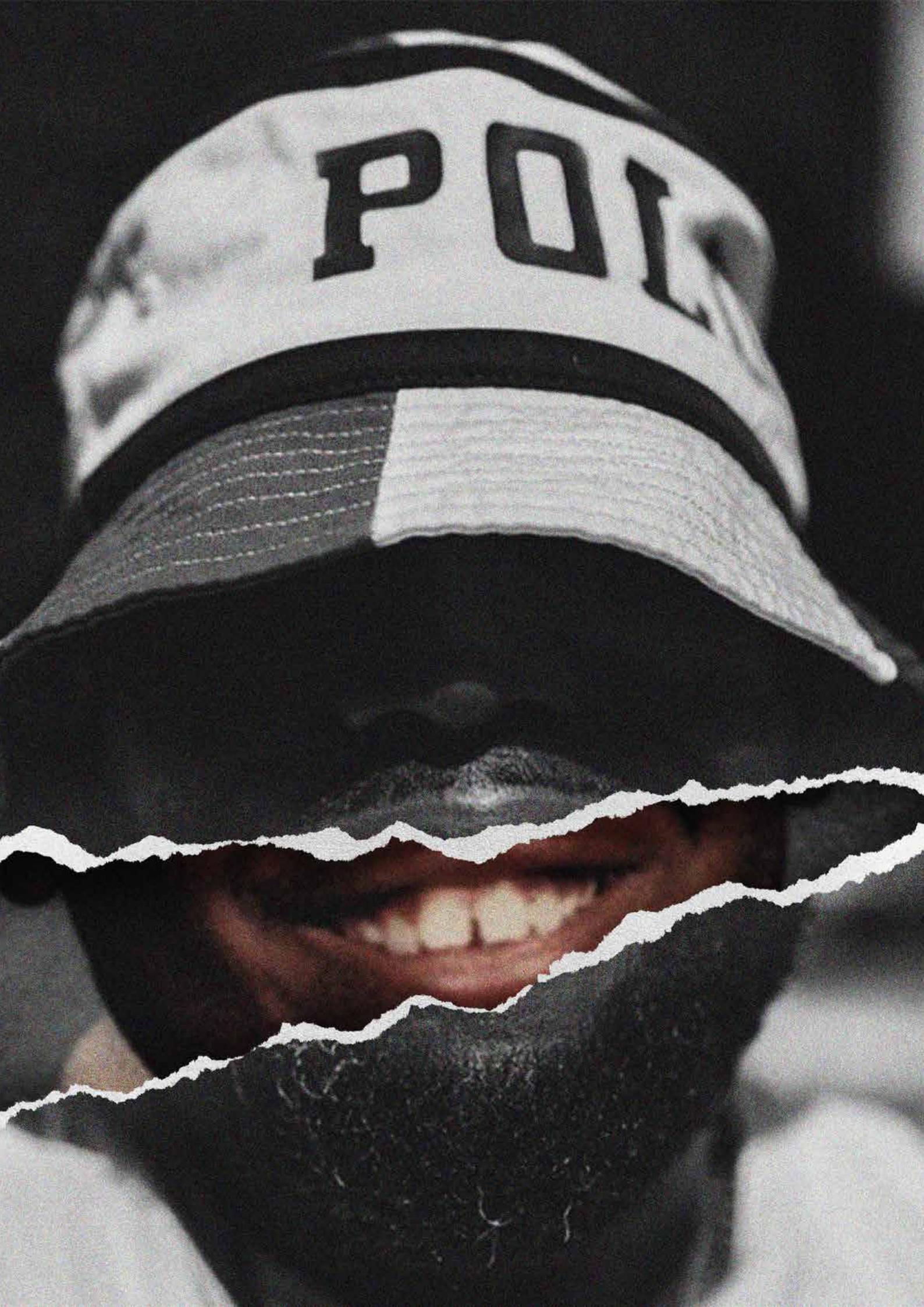
사운드 외적으로는 "Mama, I'm Sorry"를 시작으로 내면의 이야기를 다소 진지하게 꺼내며 전작들과 대비되게 컨셔스한 가사를 나타냈다. 위 말만 들으면 그동안의 모습을 탈피하고 새롭게 태어난 릴 우지 버트 같지만, 팝과 힙합을 섞은 pharrell williams와 Tyler the Creator와 달리 부조화가 존재한다. 실험적인 면모는 충분히 보여줬지만,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는가?"라는 질문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거 같다. "Aye", "Died and Came Back" 등 새로운 사운드만 가져오기에 급급했던 것일까, 보컬과 새로운 랩 퍼포먼스가 사운드와 따로 노는 경우가 많고, 프로덕션 자체도 장치 하나하나가 뛰어나지만 따로따로 노는듯한 부자연스러운 면이 강해 완성도가 높은 앨범은 아닌 거 같다. 비유하자면 요즘 유행하거나 독특한 식자재들을 한 그릇에 넣고 비볐으나 맛은 새롭긴 하나 맛이 없는 음식이랄까. 섞이긴커녕 곡 내 섞은 요소들이 따로따로 논다. 준수한 퀄리티로 앨범을 통째로 듣기도 버거운 방면, 26트랙이라는 미친 양의 트랙 수를 자랑하며 앨범으로 즐기는 것엔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수치적인 성과만 따졌을 때 몇십 년 만에 힙합 앨범이 1위를 못 할 뻔한 사건을 잠재우며 다행히 1위를 달성했고 그의 독특한 음악 자체는 아직 견고한 것을 보여준다. 또 저번작까지 고수하던 <Luv Is Rage2> 스타일을 탈피하며, 다행히 트랩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기복제적인 모습은 없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결국엔 이러한 획기적인 시도들은 우지뿐만 아니라 잠시 정체되어 있던 힙합씬을 건강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릴 우지 버트가 묘사하려 했던 앨범의 방향은 정확히 알맞게 떨어졌으며, 실험적인 면안에서 우지가 원하는 방향과 대중이 원하는 방향의 초점을 맞추려는 일종의 "맛보기 앨범" 같았다. 결국 26트랙이라는 앨범 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 앨범은 우지의 새로운 커리어의 분기점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우지 스타일 탄생을 알리는 토대가 될 것이다. 발매 직후 곧바로 앨범을 낼 것이라는 우지의 말을 통해 이번 앨범을 데이터를 삼아 좀 더 적극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앨범을 만들 거 같다.



POY





MICHAEL Killer Mike

- | | |
|-------------------------------------|---------------------------|
| 1 DOWN BY LAW | 8 TWO DAYS |
| 2. SHED TEARS | 9 SPACESHIP VIEWS |
| 3 RUN | 10 EXIT 9 |
| 4 NRICH | 11 SOMETHING FOR JUNKIES |
| 5 TALK'N THAT SHIT! | 12 MOTHERLESS |
| 6 SLUMMER | 13 DON'T LET THE DEVIL |
| 7 SCIENTISTS & ENGINEERS | 14 HIGH & HOL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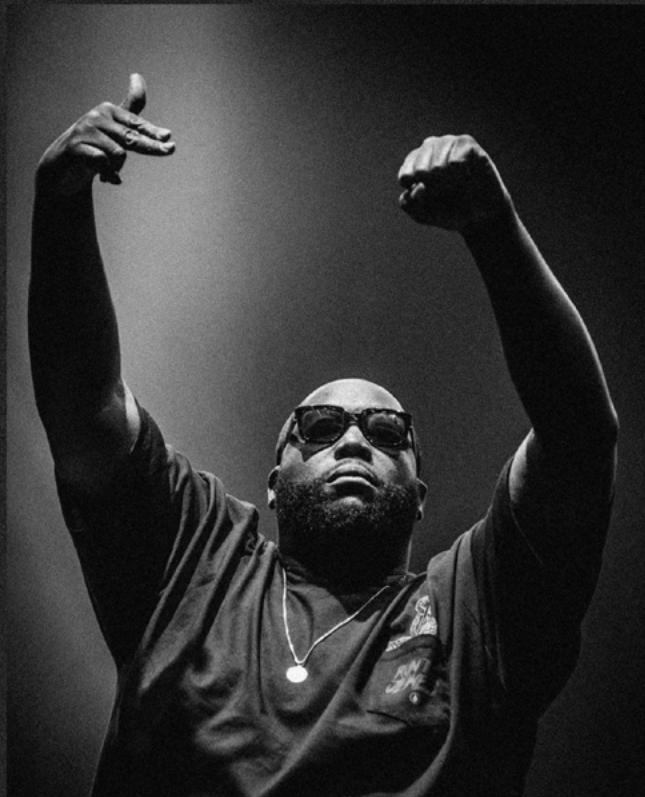
Editor 온암

킬러 마이크(Killer Mike)와 El-P가 의기투합해 *<Run The Jewels>* 시리즈로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을 뒤흔들어놓은지 어느새 10년이 지났다.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킬러 마이크는 어느 래퍼보다도 크게 목소리를 내며 그의 정치적 의견을 내비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많은 음악적 찬사와 지지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런 그가 11년이 지난 지금 굳이 솔로로 복귀했다는 것은, 필히 그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적중한다. 선공개 싱글들에서 예고되었다시피, 킬러 마이크는 한 흑인 Michael Render로 돌아가 철저히 개인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DOWN BY LAW"에서 "HIGH & HOLY"까지의 흐름으로 미루어보아, 사실 '사회 전체에서 개인으로 초점을 축소시킨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는 Kendrick Lamar의 *<To Pimp A Butterfly>*나 Beyoncé의 *<Lemonade>*가 취한 진행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개인의 성장이 사회의 회복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문제가 개인에게 투영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는 킬러 마이크가 *Run The Jewels* 시절처럼 사회 개혁의 의지를 전면에 내비치기보단 개인사를 풀어나가는 데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확실시한다.

그에 적합한 톤을 조성하기 위해 킬러 마이크에게는 아주 뛰어난 음악적 동반자가 필요했다. El-P처럼 과격하지 않고 조금 덜 창의적인, 그러나 자신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No I.D.는 베테랑 비트메이커로서 앨범의 여러 비트들을 직접 제작하는 한편, 총괄 프로듀서로서 앨범의 음악적 구성과 진행을 조율하며 킬러 마이크의 메시지가 더욱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약 54분에 육박하는 플레이타임 동안 청자가 느끼는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그렇게 완성된 <MICHAEL>만의 가스펠 힙합 프로덕션은 지난 5년 간의 모든 가스펠 힙합 앨범을 통틀어서도 최고라 평가받을 만하다. 트랩과 불뱀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어색함을 느낄 새 없이 피아노 루프의 리듬과 공간감이 충만한 관악 연주로 몰아치는 앨범의 구성은 청자의 귀와 심장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Cool & Dre, DJ Paul, Don Cannon 등이 비트메이커로 참여하며 킬러 마이크가 커리어 내내 유지하던 남부 힙합의 지역색을 가미했다.



CeeLo Green, Ty Dolla \$ign, Blxst 등 전설부터 신예까지 수많은 싱어들이 킬러 마이크의 내면적 여정에 참여했지만 Eyn Allen Kane이야말로 본작의 MVP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울풀한 가창으로 총 3곡에 참여하며 가스펠 특유의 신성함을 부각시킨 그녀의 보컬은 킬러 마이크가 포착하려 했던 '감정적 순간' 그 자체이다.

Run The Jewels의 반쪽으로서 보인 활약보다는 덜할지 몰라도, 래퍼로서 킬러 마이크의 역량 또한 여전하다. "RUN"이나 "TALK'N THAT SHIT"에서의 단조롭고 클리셰적인 퍼포먼스가 종종 감상을 방해하긴 하지만, 그 외의 곡에서 묵직한 목소리로 구사하는 래핑은 그가 왜 남부 힙합 최고의 베테랑으로 평가받는지 저절로 납득가게 하는 수준의 것이다. 특히나 "SCIENTISTS & ENGINEERS"에서 André 3000의 아성조차 초월하는 그의 벌스는 과연 킬러 마이크라는 찬사가 절로 나오게 할 정도였고, "MOTHERLESS"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담담히 논하는 그의 래핑은 랩 또한 분명히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창 방식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듯 했다.

종교적 모티브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특성을 그의 개인사와 적절히 연계해 주제의식을 강하게 전달하는 그 특유의 리릭시즘 또한 여전하다. 20년차의 베테랑치고 어휘적으로 그다지 풍성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 편이 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엔 더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점이 단점을 상회하는 선택이었다. 10대 시절의 불장난과 어머니의 죽음까지도 꾸밈 없이 공개하는 그는 현재 씬에서 가장 진솔한 이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외의 랩 피쳐링이 필요했는가, 라는 의문에는 다소 회의감이 든다. André 3000과 El-P, 2 Chainz 정도를 제외한다면 타 래퍼들의 벌스는 대부분 애매한 수준에 그치거나 장치적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앨범 프로덕션이나 킬러 마이크의 보컬은 더 없이 홀륭했기에 그만큼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R.A.P. Music>만큼이나 능수능란하고 야성적인
킬러 마이크의 음악을 원한다면 <MICHAEL>은
그다지 추천하는 작품이 아니다.

허나 앨범에 담긴 음악은 54분이란 시간을 결코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며,
그보다 더 깊이 내재된 한 남자의 진심은
이 음반을 더욱 가치있게 만든다.



90's MLB x Willie Esco
New York Yankees Jersey



Magic 2 Nas

- | | |
|-------------------|--------------------------------|
| 1 Intro | 7 Earvin Magic Johnson |
| 2 Abracadabra | 8 What This All Really Means |
| 3 Office Hours | 9 Slow It Down |
| 4 Black Magic | 10 Pistols On Your Album Cover |
| 5 Motion | 11 One Mic, One Gun |
| 6 Bokeem Woodbine | |

Editor 온암

2018년 Kanye West와의 협업으로 발표한 <NASIR>가 예상치 못한 혹평을 받은 후, 나스(Nas)는 그의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해야만 했다. 그 대상은 Hit-Boy였다. 2010년대 초반부터 굵직한 비트들을 생산해내며 스타 프로듀서로 등극한 그였지만, 그의 비트가 과연 소위 ‘근본 있는’ 힙합을 지향하는 나스의 스타일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 다행히도 그 의심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다소 애매하게 시작한 <King's Disease>를 뒤로하고 <King's Disease II>, <Magic>, 그리고 나스의 새로운 클래식이라는 찬사를 받은 <King's Disease III>까지 나스와 Hit-Boy 듀오는 3년 동안 종횡무진의 행보를 이어갔다.

그 중 <Magic>은 <King's Disease> 시리즈와 차별화된 순수 블랙 앨범으로서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다소 촌스럽게 들릴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며 Joey Bada\$\$, Westside Gunn, Benny The Butcher 등 신세대들의 음악과는 다른 매력을 지닌 앨범은 그야말로 골든 에라 힙합의 모범적인 현대화라 칭할 만 했다. 1994년부터 최고라는 수식어 근처를 떠나지 않은 거장의 카리스마와 뉴욕의 우중충한 공기를 머금은 Hit-Boy의 묵직한 비트가 손을 잡은 결과물이었다.

<Magic 2>는 바로 그런 <Magic>의 후속작이다. 그러니 순수한 뉴욕 블랙 앨범을 선호하는 리스너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Magic 2>가 그 수요를 충족시켰는가?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절반의 성공이다. 인트로 후 첫 번째 트랙인 "Abracadabra"부터 808과 카우벨을 사용한 트랩 넘버로 밝혀지며 또 다른 <Magic>을 기대했던 이들의 희망에 금을 낸다. 전작의 인트로였던 "Speechless"가 흑예만 한정적으로 트랩 드럼을 사용하며 압도적인 포스로 앨범 전체의 톤을 조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앨범이 진행될 수록 이 작품이 <Magic 2>보다는 <King's Disease 3.5>에 가깝다는 확신은 커져만 간다. 비교적 밝은 분위기, 블랙과 트랩 드럼의 잡은 혼용은 분명 <King's Disease>의 특성에 부합한다. 매번 놀라운 도약만을 반복해 온 드디어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출발선 근처로 회귀한 것이다. 바로 전 앨범이었던 <King's Disease III>가 장르 배합 중 트랩의 비중을 낮추며 유기성을 훌륭히 성취했기에 더욱 아쉬워지는 부분이다. <Magic> 시리즈가 <King's Disease>라는 거대한 시리즈의 인터루드 격이라면,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작은 볼륨을 가진 것을 고려한다면 부분적으로 참작이 되긴 한다. 그러나 단일 시리즈로서 <Magic>의 정체성이 애매해졌다는 사실은 향후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작은 의문을 갖게 한다.

허나 이 앨범이 '좋은 음반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Magic 2>에는 여전한 낭만이 있다. Hit-Boy는 70년대 소울 음악부터 이집트 음악, Graveyard Production의 멤피스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총괄하며 나스가 활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90년대~00년대 동부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연상케 하는 'What This All Really Means'과 'Slow It Down'이 대표적이다. 협업 중 나온 최상등품은 아닐 지라도, 양질의 결과물임에는 분명하다. 더군다나 얼마 전 Metro Boomin이 "Nas Morales"로 비트와 랩이 엇갈리는 애매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과 비교했을 때, Hit-Boy는 여전히 나스라는 악기를 가장 잘 다루는 프로듀서임이 확실하다.

준수하지만 이전에 비해선 약간 아쉬운 인상을 주는 Hit-Boy의 비트에 비해, 나스의 랩은 오히려 발전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JAY-Z, Ghostface Killah, Black Thought와 같이 과거의 영광을 잊지 않는 전설적인 MC들은 많으나 나스처럼 발전의 기세를 보이는 MC는 결코 흔치 않다. 살아있는 전설이 된 그의 위상을 과시하면서도 특유의 시적 표현은 여전한 그의 랩은 현재 그 어떤 이의 랩보다도 완벽의 영역에 근접해있다. 특히나 그가 "Motion"에서 선보인 고밀도의 퍼포먼스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의 것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래퍼라는 영예로운 칭호가 현 세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한 또 하나의 좋은 예시였다. "Office Hours" 또한 마찬가지이다. 50 Cent라는 또 하나의 전설과 함께 한 그의 랩은 피쳐링의 존재감을 거의 덮어버릴 정도로 걸출했다.



<Magic 2>는 이제 50줄에 접어든 힙합 아티스트가 냈다고 하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아티스트의 전작들만큼이나 훌륭하진 않기에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나스야말로 <Illmatic>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소포모어 징크스에 고통받은 대표주자이기에, 그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괜한 노파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그가 적지 않은 나이에 또 다른 전성기를 맞았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말이다.

허나 나스와 Hit-Boy가 언제나 양질의 결과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 결국 이번에도 <King's Disease IV>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Look Mom I'm in

Utopia

Travis Scott UTOPIA

- 
- | | |
|---------------------|-----------------------|
| 1 HYAENA | 10 I KNOW ? |
| 2 THANK GOD | 11 TOPIA TWINS |
| 3 MODERN JAM | 12 CIRCUS MAXIMUS |
| 4 MY EYES | 13 PARASAIL |
| 5 GOD'S COUNTRY | 14 SKITZO |
| 6 SIRENS | 15 LOST FOREVER |
| 7 MELTDOWN | 16 LOOOVE |
| 8 FE!N | 17 K-POP |
| 9 DELRESTO (ECHOES) | 18 TELEKINESIS |
| | 19 TIL FURTHER NOTICE |

Editor 온암

명반의 탄생을 위해 사건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해야만 하는 것일까? Kanye West는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를 창조하기 전 VMA에서 Taylor Swift에게 극심한 무례를 저질렀고, 전 미국 사회에게 용서받아야만 한다는 강박을 원동력으로 앨범 작업을 진행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칸예의 제자인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 또한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는 중인 것만 같다. 아스트로월드 뮤직 페스티벌의 끔찍한 압사 사고와 그에 대한 미숙한 대처는 세계 최정상 래퍼로 성장한 트래비스 스캇의 입지를 흔들어놓기 충분했다. 더군다나 그가 <ASTROWORLD> 이후 발매한 싱글들의 평가가 대체로 좋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때, 트래비스는 그가 일궈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었다. 음악가로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더 나은 음악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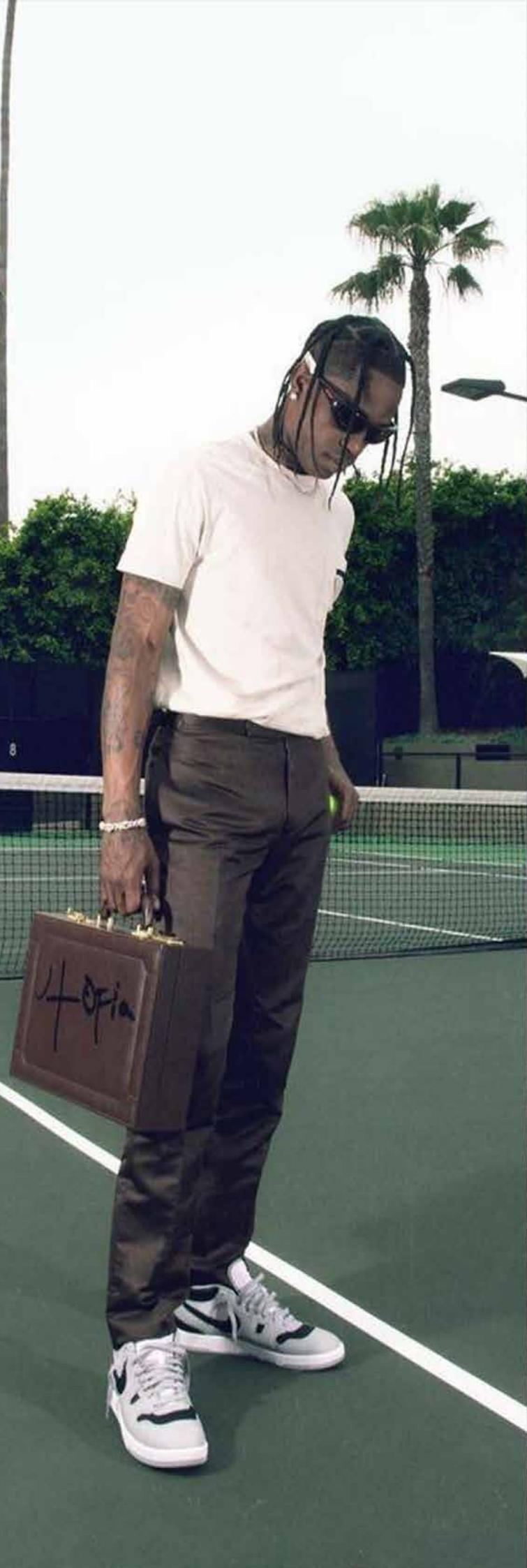
그렇다면 트래비스의 새 음악은 대중과 피해자들을 위한 사과인가? 그렇지 않다. "MY EYES"에서 'If they just knew what Scotty would do to jump off the stage and save him a child'라는 간단한 언급으로 자기변호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고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오히려 그는 그동안 유지했던 스탠스를 강화하고 있다. 역경과 고뇌, 진보에 대한 열망, 성공에 대한 확신 등을 논하는 트래비스는 그의 발자취가 새로운 세상에 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저 너머의 이상향, 유토피아로 향해간다.

직접 이번 앨범이 <Days Before Rodeo>나 <Rodeo> 등 그의 과거 작품들에 가까운 사운드를 지닐 것이라 예고한 만큼, <UTOPIA>는 옛날의 트래비스 스캇을 연상시키는 요소로 가득하다. 이질적인 인상을 주는 샘플, 작열하는 사이키델릭 신스, 다양한 질감의 드럼,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분위기 등 <UTOPIA>의 원소들은 분명 과거에서 넘어온 것들이다. 그러나 <UTOPIA>는 결코 <Rodeo>의 저열한 2023년 버전 복제품 따위가 아니다. "90210", "Night crawlers", "Maria I'm Drunk" 등 싱글 단위의 고점에는 미치지 못할 지언정, 전체적인 구성력 면에선 오히려 진일보했다. 분명 훨씬 정제되었다. <ASTROWORLD>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Rodeo>의 재료를 사용하면 나올 법한 음악이라는 인상을 준다.

첫 번째로 귀에 들어오는 것은 프로덕션의 압도적인 규모와 독보적인 연출이다. 인트로 'HYAENA'는 트래비스의 여느 인트로에 버금가거나 그를 상회하는 충격을 안기고, Playboi Carti와 함께 한 레이지 트랙 'FE!N'은 Carti 본인의 곡들과도 비교선상을 달리하는 웅장함을 자랑한다. 특히나 전작에 이어 비트 체인지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 트래비스 스캇 본인의 뛰어난 프로듀싱 실력과 베테랑 MIKE DEAN의 신시사이저 프로그래밍에 힘입어 "MY EYES", "MELTDOWN", "SIRENS", "SKITZO" 등 굉장히 인상적인 지점들이 탄생한다. 특히나 Buddy Ross의 손길을 거친 "MY EYES"는 트래비스의 모든 작업물을 통틀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를 지녔다 찬사받을 만하고, "MELTDOWN"은 "SICKO MODE"의 공식을 부분적으로 탈피하며 기분 좋게 청자들의 예상을 빗나간다. 음악적 다양성 면에서도 주목해 볼 만하다. Beyoncé가 참여한 'DELRESTO (ECHOES)'는 그녀의 <RENAISSANCE>에 수록되어도 결코 어색하지 않을 양질의 하우스 음악이고, 'LOOOVE'는 댄스홀 음악을 트래비스 자신의 음악색에 맞춰 재해석한 훌륭한 사례이다.

또한 이전보다 실험적이고 전자음악적인 색채를 띠는 것은 Kanye West의 <Yeezus>나 <The Life Of Pablo>를 연상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Yeezus>와의 비교가 유독 활발하다. 거친 인더스트리얼 사운드와 야성적인 육성의 사용 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Kanye는 "THANK GOD"의 프로듀싱에 참여했고, Daft Punk의 Guy-Manuel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MODERN JAM"은 본래 "I Am A God"의 초기 비트였으며, "CIRCUS MAXIMUS"의 드럼은 "Black Skinhead"의 그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Yeezus>의 영향력이 발매 10년 후에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놀랍기도 하지만, 애초에 트래비스 스캇 본인이 <Yeezus> 프로듀싱에 지분이 꽤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트래비스는 옛 자신을 새로이 재단한 셈이다.

곡들의 길이가 2분 대로 줄어드는 스트리밍 시대에서 19곡이 수록된 1시간 13분의 앨범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초반부의 에너지는 후반부로 가기까지 거의 손실되지 않는다. 앨범 전체의 구성이 계산적으로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다소 상투적인 "I KNOW ?" 정도를 제외한다면 앨범은 훌륭한 호흡으로 플레이타임을 흥미롭게 채워간다.



무엇보다 선공개 싱글로 발매되어 혹평을 받았던 "K-POP"을 앨범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은 매우 놀랍다. 라틴 팝 특유의 이질감과 트랙 자체의 부실한 완성도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지만, 트래비스는 앞뒤 트랙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마련하면서도 "K-POP"에게 일종의 환기제 역할을 부여하며 곡이 앨범에 녹아들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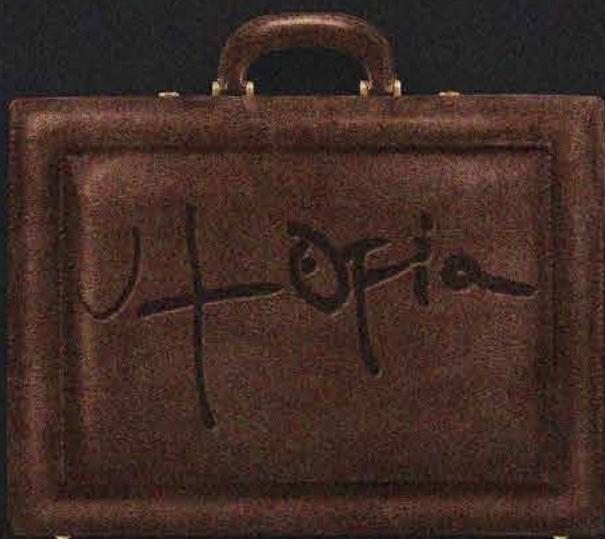
트래비스 본인의 퍼포먼스 또한 인상적이다. <Birds in the Trap Sing McKnight>와 <ASTROWORLD>보다도 <Days Before Rodeo>와 <Rodeo>에 가까운 랩 스타일을 소화하는 트래비스 스캇은 그가 엄연한 래퍼라는 것을 망각한 이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돌직구를 선사한다. 특유의 거친 톤으로 전개하는 플로우와 더욱 다양해진 고유의 악성적 추임새는 곡의 전개에 있어 긴장감을 더해주거나 카타르시스 직전까지 청자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Rodeo>에 대한 평가 중 미완성된 오토툈 보컬이 지적되었음을 떠올리면, 트래비스 스캇의 오토툈이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는 현 시점에서 그의 래핑 스타일이 완성형에 도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피쳐링 활용도 하나 같이 훌륭했다. 모든 피쳐링이 1인분 이상의 활약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TELEKINESIS"의 SZA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SZA가 곡에 입장하는 순간, 무대 위의 여주인공을 비추는 조명처럼 모든 사운드가 그녀에게로 집약되었다. 그리고 SZA의 아름다운 보컬은 명백히 앨범 내 최고의 순간을 마련했다. "LOST FOREVER"의 Westside Gunn 또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소화한다. The Alchemist의 비트 위 Westside Gunn이 특유의 추임새와 함께 랩을 뱉자 "LOST FOREVER"는 어느새 Griselda의 영역으로 변해있었다. 이외에도 "MELTDOWN"의 Drake, "FE!N"의 Playboi Carti, "CIRCUS MAXIMUS"의 The Weeknd 등이 특기할 만하다.

결국 트래비스 스캇의 원동력은 결국 타 트래퍼들과 궤를 달리 하는 '음악성에 대한 추구'이다. 그는 Metro Boomin에게 무작정 안주하거나 상업적인 곡만을 만들지 않았다. 또한 트랩이라는 얇은 우물에 빠져있지도 않았다. 애초에 그가 주로 트랩 음악을 만들던 시기가 우연히도 그의 전성기와 겹친 것뿐, 처음부터 트래비스는 그의 멘토인 Kanye처럼 다양한 장르에 발을 들일 줄 아는 아티스트였다. 그는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시대가 그를 따라오게 만들었다. 그를 Future, Young Thug, Migos와 같이 묶기보다는 이제 Kanye West, Kendrick Lamar, Tyler, The Creator와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이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줄곧 찬사해온 앨범의 음악성이 바로 그것이다. <UTOPIA>는 대중적인 앨범이 아니다. 어쩌면 그의 모든 앨범을 통틀어서도 가장 실험적인 작품일지도 모르는 음반에서 고무적인 성과만을 기대하긴 힘들다. Kendrick Lamar라는 브랜드명이 <Mr. Morale & The Big Steppers>가 이전에 비해 소소한 성과만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브랜드 또한 언제까지나 <UTOPIA>를 지탱할 수는 없다. 그가 "THANK GOD"에서 밝혔다시피 음악성에 대한 인정이라는 소기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힙합 아티스트가 막대한 대중성을 가지게 되며 메인스트림 힙합의 몇 안되는 기둥이 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UTOPIA>의 성공 여부는 향후 메인스트림 힙합 씬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TOPIA>는 단연코 2023년 최고의 메인스트림 힙합 앨범이자 트래비스 스캇 본인에게도 최고작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가 그동안 시도해온 음악 공식을 한 음반에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이 훌륭한데, 그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5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BREAKING

ATOMS

과거 명반 소개 - 90년대
Editor ryuzimoto

물질과 물체, 구분 없이 모든 것에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는 음악에서도 통용되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리듬, 멜로디, 화성이 음악의 3요소라고 불린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큰 틀일 뿐이고 장르별로 살펴본다면 앞서 언급한 3요소에서 파생된 다양한 소스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아티스트들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힙합에서도 이처럼 빛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메인 소스(Main Source)의 [Breaking Atoms]이다.

Main Source - Breaking Atoms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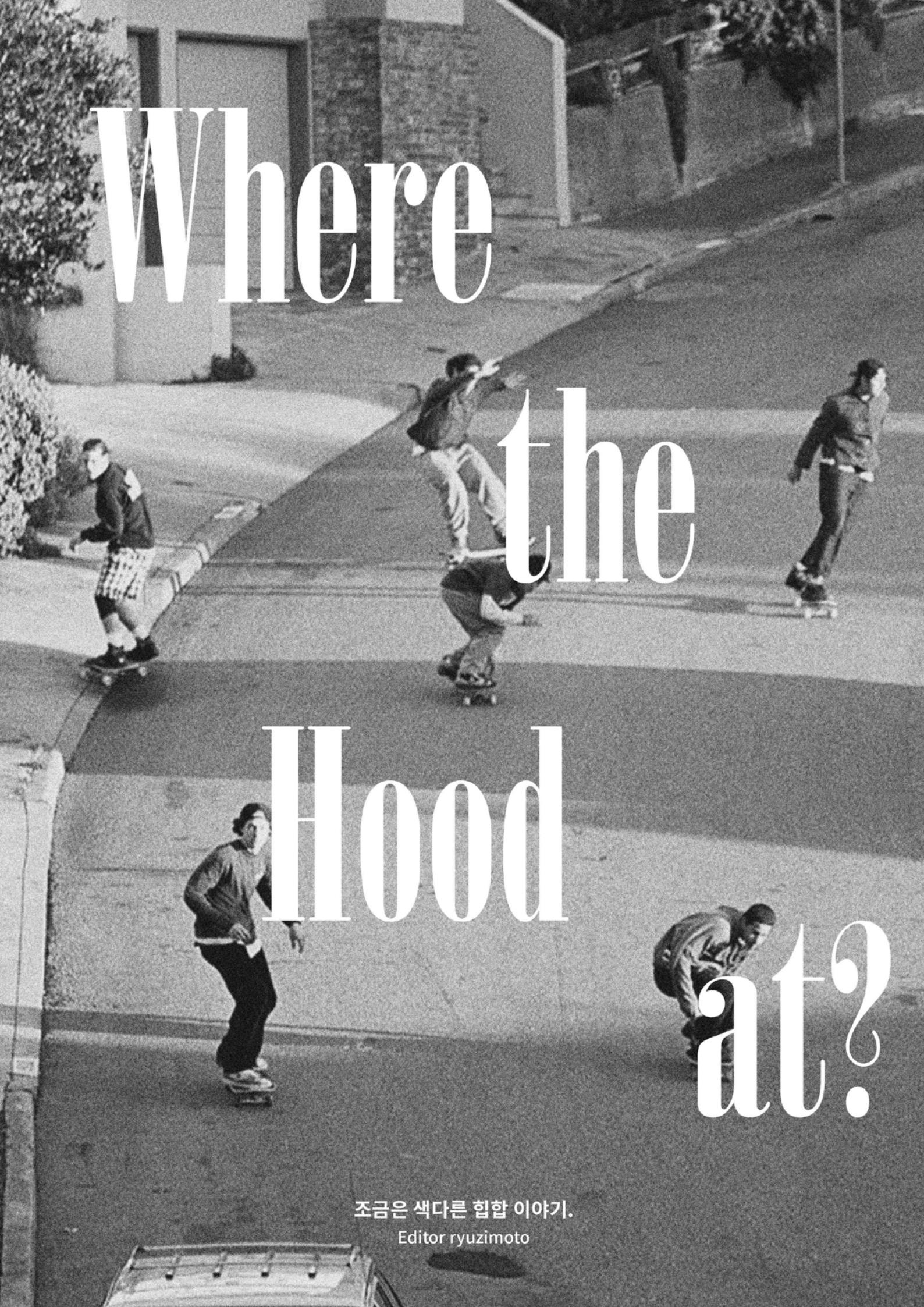
메인 소스는 라지 프로페서(Large Professor)를 주축으로 Sir Scratch와 K-Cut를 포함해 구성된 트리오이다. 이들은 1991년 힙합의 비트를 한 단계 진화시켰다. 1987년 세상에 등장한 샘플러 'SP-1200'을 통해서 말이다. 당시에는 A Tribe Called Quest, De La Soul 등의 영향으로 재지하고 얼터너티브한 샘플을 사용하는 제작 방식이 성행했다. 하지만 이들과 다르게 메인 소스는 이미 짜여진 노선을 따라 가지 않았다. 대신 러프한 드럼, 소울풀하고 평키한 샘플, 모호한 멜로디의 악기 사운드, 적재적소에 배치된 스크래치 등을 한데 모아 응집력 있고 간결한 사운드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물은 당대 프로듀서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고 동시에 라지 프로페서라는 네이밍은 외경스러운 위치로 올라섰다.

프로덕션 테크닉의 혁신만으로도 이 작품은 충분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포인트들은 분명하다. 리릭시즘적인 측면부터 본다면 흑인들을 향한 과도한 경찰 진압을 야구에 빗대어 풍자하는 "Just A Friendly Game Of Baseball", 거리에 만연해 있는 평화의 정의를 꼬집는 "Peace Is Not The Word To Play" 등 크리티컬한 주제를 담고 있다. 허나 앨범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의 부재 그리고 단조로운 랩 퍼포먼스는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앨범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나 "Live at the barbe que"이다. 현재는 베테랑이라는 수식 어로도 부족한 나스(Nas)의 데뷔곡이자 동시에 나스와 라지 프로페서의 인연이 시작된 곡이다. 여기서 보여준 둘의 놀라운 시너지는 [Illmatic], [Still matic]을 포함 여러 앨범에서도 이어졌고 이 둘의 조합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힙합 씬의 대표적인 조합이다.

앨범의 타이틀처럼 그 당시 비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을 깨부수는 순간이었다. 물론 현시점에서 본다면 자칫 올드해 보일 수는 있지만 메인 소스가 미친 지대한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다. 역사의 한순간에 각인된 [Breaking Atoms]은 오늘날 매너리즘에 빠진 아티스트들에게 뚜렷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capturing a dynamic scene of skateboarders on a city street. In the foreground, a skateboarder in a dark jacket and light pants is captured mid-motion, leaning into a turn. Behind him, another skater in a light jacket and dark pants is also in motion. Further down the street, two more skaters are visible: one in a dark jacket and plaid shorts, and another in a dark jacket and dark pants. The background shows a residential area with houses and trees, suggesting a suburban neighborhood.

Where the Hood at?

조금은 색다른 힙합 이야기.

Editor ryuzimoto

“니네 집 어디야?”

“니네 집 어디야?”

“내가 사는 동네 합정동.”

과거 ‘무한도전’을 즐겨봤던 시청자라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마 본인도 모르게 리듬을 흥얼거릴 것이다. 이는 ‘무한도전 가요제’ 편에서 정형돈과 데프콘의 트랩 장르를 설명하면서 짧게 즉흥으로 내뱉은 가사의 일부분이다. 이 가사를 내뱉는 장면은 편하게 웃으면서 넘겨버릴 만하다. 하지만 그들이 힙합 음악을 하면서 이 같은 가사를 말한다는건 나에게는 로컬 패티리어티즘 즉 '애향심'을 떠올리게 하는 꽤나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물론 과한 해석이라 볼 수도 있고 데프콘도 앞서 언급한 의미를 생각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출신지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유년기 때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온 곳이라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다. 그렇기에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애향심을 형성해 오고 있다. 애향심은 고향이나 살아온 동네에 스며든 정서, 문화,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정치인들, 응원하는 스포츠팀, 또 아티스트들로부터 우리는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아티스트들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사운드와 가사로 구성한 음악을 노래한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부터 나타난 하나의 음악적 특성이다. 여러 장르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힙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성이다.

힙합은 에고가 강한 음악이다. 장르의 배경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힙합은 과거 자유를 박탈당하고 차별받고 또 가난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리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빈곤층들이 모여 시작된 음악이다. 또한 그들은 외부인들에게 간섭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현상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 이러한 모습은 가속화되었고 조금은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래퍼들은 성공해서 본인 출신지를 부흥시키는 것이 자랑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많은 래퍼들은 랩으로 지역을 대표했다. Jay-Z와 Nas는 뉴욕을 찬양했고, Kerick Lamar와 DJ Quick, N.W.A는 컴튼을 Mos Def와 Ol' Dirty Bastard는 브루클린을 2pac과 Snoop Dogg은 엘에이를 Ludacirs와 T.I.는 애틀랜타를 Eminem과 Royce da 5'9"은 디트로이트를 이렇게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사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은 힙합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들어보고 익숙한 지역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5곡은 조금은 색다르고 낯선 지역을 대표하는 Anthem이다.





ARRESTED DEVELOPMENT - TENNESSEE TENNESSEE

테네시 주는 그룹 어레스티드 디벨롭먼트(Arrested development) 리더 스피치(Speech)의 고향이다. 사실 테네시주는 주도인 내슈빌로 인해 힙합보다는 컨트리 장르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스피치는 얼룩지고 부패한 흑인 사회의 아픔과 개혁을 말하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리가 아닌 힙합이라는 장르를 통해 담담하지만 호소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지금껏 겪어온 아픔을 잊기 위해 신에게 다른 곳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신은 조상들의 터전인 테네시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말하며 다시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 같은 가사를 바탕으로 어레스티드 디벨롭먼트는 본연의 힙합 사운드보다는 좀 더 소울풀하고 색다른 색채로 흑인 사회의 아픔을 표현한다.

QUEEN LATIFAH - JERSEY NEW JERSEY

당시 힙합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도 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성 래퍼의 길을 닦아놓은 여제 라티파(Latifah), 그녀는 뉴저지 출신인 만큼 10대들의 범죄와 우정 그리고 경찰들과 갈등, 인종적 문제를 그려낸 영화 “New Jersey Drive” OST에 참여했다. 여기에서 퀸 라티파는 “Jersey”를 통해 뉴저지에 대한 애정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DE LA SOUL - LONG ISLAND DEGREE LONG ISLAND

지금껏 샘플 관련 소송으로 음원사이트에서 들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잘 해결되어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데 데 라 소울(De La Soul)의 “Long Island Degree”이다. 3인조로 구성된 데 라 소울은 뉴욕주에 소속된 섬인 롱 아일랜드에서 결성된 트리오이다. 이들은 그 당시 대부분 래퍼들이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거와는 달리 조금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교육까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스타일은 유행하고 주류였던 갠스터 힙합과는 조금 달랐다. 사운드부터 말랑말랑하고 재지했으며 가사에서도 사회, 정치적 문제 또는 폭력적인 거리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유쾌하고 자유로운 내용들로 가사를 구성했다.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에는 빽빽하고 차가운 도시 뉴욕보다는 좀 더 느긋하고 평온한 섬에서 지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Long Island Degree”도 앞서 언급한 데 라 소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사운드는 평키하며 여유롭고 가사도 창의적이면서 엉뚱하다. 환경과 지역적 차이가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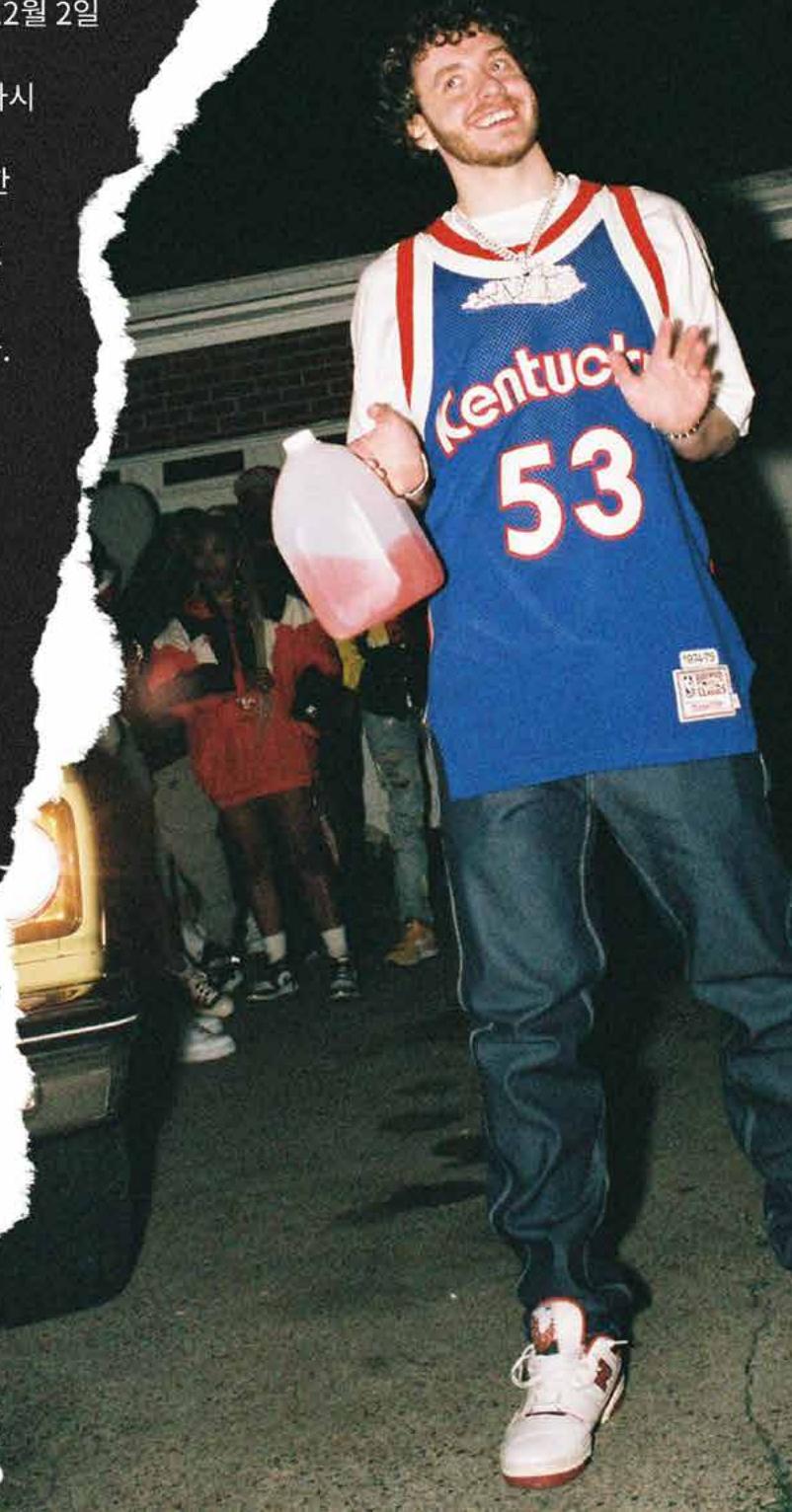
클립스(Clipse)는 형제인 말리스(Malice)와 푸샤 티(Pusha T)로 구성된 듀오이다. 사실 이 형제의 고향은 소개할 노래 제목처럼 버지니아가 아니다. 사실 뉴욕 브롱크스 지역이었으며 어릴 적 버지니아로 이주한 것이다. 버지니아로 이주하고 나서 마약 거래에 노출되었고 또 직접 마약을 팔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게토 문화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불운하고 어둡게 보내온 날들은 오히려 더 클립스의 음악적 양분이 되어주었다. 실제로 가사 대부분은 마약과 섹스, 폭력 등으로 이뤄져 있다. 버지니아 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쥬얼 라이징 된 것이다. 이들은 동네 친구였던 Neptunes (Pharrell Williams와 Chad Hugo)와 친하게 지냈고 서로 많은 작업을 해왔다. “Virginia”도 마찬가지이다. 02년도 Neptunes답게 미니멀리즘 하게 프로덕션 된 비트 위에서 Clipse는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버지니아를 냉소적으로 읊조린다.

CLIPSE - VIRGINIA VIRGINIA



JACK HARLOW - FACE OF MY CITY LOUISVI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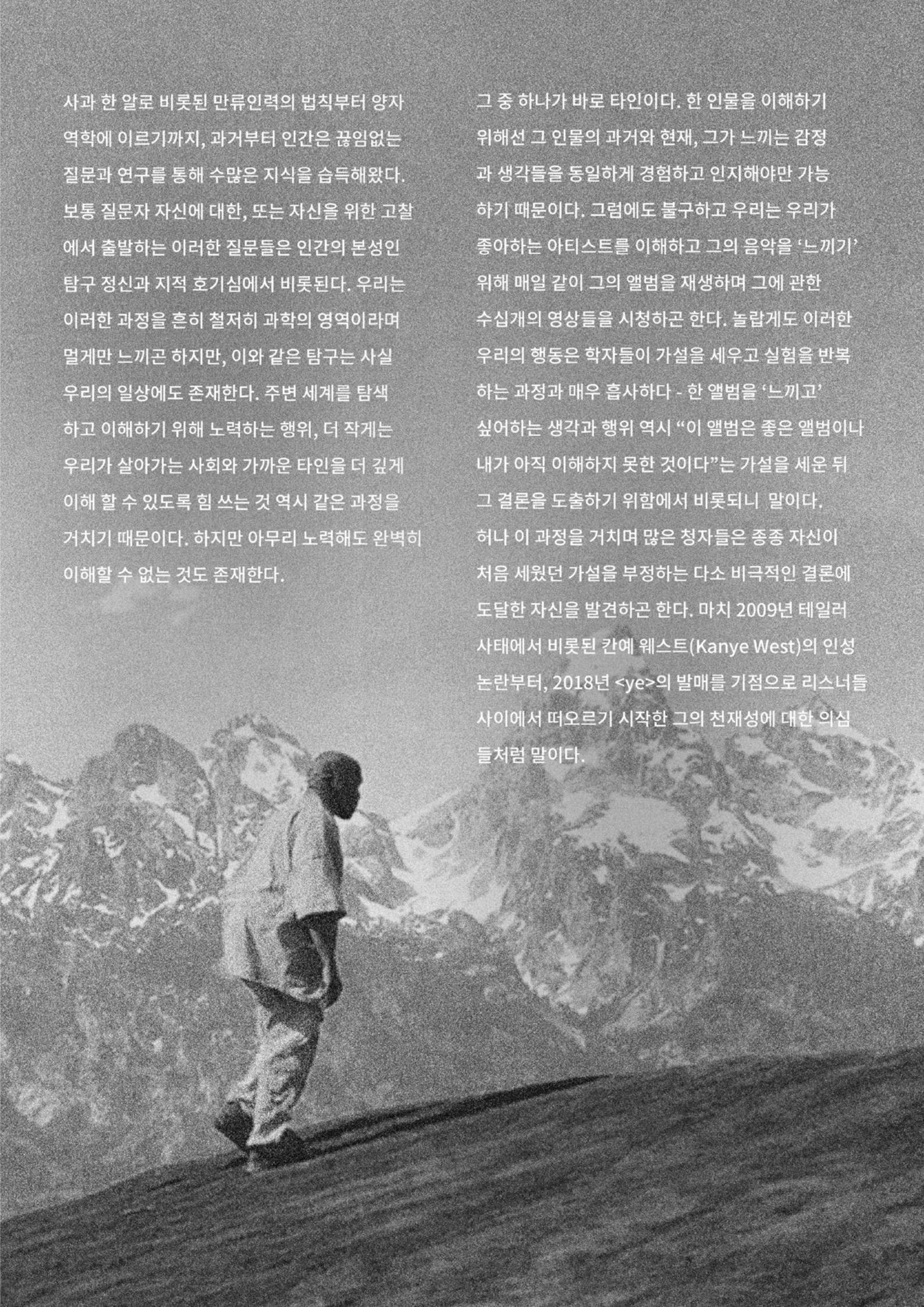
2020년도에 “What’s Poppin”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더 나아가 XXL Freshman Class까지 선정된 잭 할로우(Jack Harlow). 이 같은 성과로 인해 그의 데뷔 앨범은 발매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는 2020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12월 2일 첫 데뷔 앨범 <That's What They All Say>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더 스스로를 증명했다. 이 앨범에서는 출생지역에 대한 존중이 여러 장치들을 통해 나타나므로 우리는 잭 할로우가 켄터키주의 루이스빌 출신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한다. 특히 수록곡 “Face Of My City”에서는 자신감 있게 ‘I’m the face of my city’라는 가사를 내뱉으며 지역을 대표한다. 그는 이와 같은 지역적 프라이드를 바탕으로 지금껏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감 없이 진행한다.





칸예 웨스트
알아보기

Editor snx



사과 한 알로 비롯된 만류인력의 법칙부터 양자 역학에 이르기까지, 과거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질문과 연구를 통해 수많은 지식을 습득해왔다. 보통 질문자 자신에 대한, 또는 자신을 위한 고찰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본성인 탐구 정신과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흔히 철저히 과학의 영역이라며 멀게만 느끼곤 하지만, 이와 같은 탐구는 사실 우리의 일상에도 존재한다.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 더 작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가까운 타인을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힘 쓰는 것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이다. 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인물의 과거와 현재, 그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인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해하고 그의 음악을 ‘느끼기’ 위해 매일 같이 그의 앨범을 재생하며 그에 관한 수십개의 영상들을 시청하곤 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 한 앨범을 ‘느끼고’ 싶어하는 생각과 행위 역시 “이 앨범은 좋은 앨범이나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는 가설을 세운 뒤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에서 비롯되니 말이다. 허나 이 과정을 거치며 많은 청자들은 종종 자신이 처음 세웠던 가설을 부정하는 다소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마치 2009년 테일러 사태에서 비롯된 칸예 웨스트(Kanye West)의 인성 논란부터, 2018년 <ye>의 발매를 기점으로 리스너들 사이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그의 천재성에 대한 의심들처럼 말이다.

앞서 언급한 사실에 기반해, 우리는 칸예를 모든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이 그저 몇 발자국이라도 칸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여러 방면으로 그와 비슷한 인물들의 삶과 그들이 내린 수많은 선택들을 근거로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앞으로 총 세 번에 걸쳐 기고할 ‘칸예 웨스트 알아보기’는 2013년 Yeezus의 칸예 웨스트를 시작으로 그를 각기 세 명의 역사적 위인들과 비교하며 칸예 웨스트라는 다소 난해한 인물과 그의 음악에 접근하는 색다른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어느 특정 년도 혹은 앨범을 기점으로 칸예가 기독교인으로 거듭났다 얘기하지만 사실 칸예는 1977년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온 모태신앙이다. 2009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어린 시절 그에게 종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며 현재 자신에겐 종교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초기 칸예의 음악에서 끊임없이 신과 예수를 언급 하지만 기독교 교리와 매우 어긋나는 기행을 일삼는 그의 모순적인 태도는 성인이 된 후 그의 종교적 신념이 기독교에서 단순 유신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칸예와 비슷한 인물로 1851년 출생한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 (David Starr Jordan)이 있다. 데이비드는 아주 독실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다. 당시 청교도인들의 성경 중심적 사상을 생각해보면 그가 자연을 공부하고 지도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속을 깨나 썩였으며 특별하지 않은 아이처럼 대하여 졌다는 기록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의 종교적 배경은 훗날 이들의 미래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칸예가 자신의 모태적 신앙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시점, 데이비드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그가 자신이 일평생 믿고 자라온 신의 섭리를 부정하는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 들이게 된 것이다. 두 인물 모두 자신의 어릴적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들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 21세기 가장 위대한 힙합 아티스트가 된 칸예는 자신을 Yeezus라 일컬기 시작 했으며 수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분류학자가 된 데이비드는 자신이 발견한 2000종이 넘는 물고기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며 많은 물고기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을 맞이하게 된다. 칸예는 2016년 정규 7집 <The Life of Pablo> 발매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병실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보고 신의 계시라 여겨 다시 기독교인이 되었고 데이비드는 다윈의 이론을 통해 인간은 결코 다른 생물들을 통제하고 분류할 만큼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인물 모두 결국 어린 시절 자신이 기피하던 이른바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을 맞이한 이 두 인물은 이후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먼저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데이비드는 자신의 특별함을 다른 생물과의 비교가 아닌 다른 인간과의 비교에서 찾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말년을 우생학적 관념에서 부적합자라고 판단되는 이들을 강제 수감, 불임시키며 보냈다. 그렇다면 칸예는 어떨까. 2018년 발매된 *<ye>*, 그리고 *<Jesus is King>*을 넘어 *<Donda>*까지, 가족과 신앙, 회개에 초점을 맞춘 음악들을 통해 새로운 도약, 쉽게 말해 철이 든 모습을 보여주던 칸예에게 또 다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바로 2022년 트위터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여러 반유대주의적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며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칸예의 반유대주의적 발언들이 -아마 칸예가 의도하거나 인지하지는 못했겠지만- 데이비드와 같은 청교도적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청교도인들은 성경 중심으로 한 규칙적인 삶을 살았으며 아이들의 교육을 중요시 여겨 학교를 세우며 교육에 힘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 마치 매일 성경을 읽고 필사하며 신앙심을 키우고 후에 돈다 아카데미를 세운 칸예처럼 말이다. 또한,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신께서 정해놓으셨으며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라 믿었다. (칸예는 자신이 신께 선택받은 자이고 신이 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show off하는 것이라 믿으며 여러 차례 미디어를 통해 이런 그의 신념을 알렸다.) 따라서, 많은 청교도인들은 그들과 같은 종교적 뿌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조차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여겨 많은 이들이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띠었다고 알려져 있다.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이의 열등함을 증명해야 한다면, 내가 증명하는 것이 정말 나의 특별함이 맞을까? 만일 맞다 하더라도, 정말 그가 천재가 맞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언제까지나 그의 악의를 덮지는 못할 것이다 - 오랜 세월 스탠포드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자리를 지키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동상이 2020년이 되어서야 문제 삼아져 철거된 것처럼 말이다. 힙합의 영원한 아이콘 칸예 웨스트. 그가 세운 업적과 발매한 수많은 음악들은 몇십년이 지나도 전설로 받아드려질 것이 틀림 없다. 다만, 그의 열렬한 팬으로서 그의 행보가 심히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몇 년, 또 몇 장의 앨범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칸예의 커리어이지만, 언젠가 음원으로 “Never See Me Again”을 듣는 날이 온다면, 그 날의 심정이 증오와 안타까움이 아닌 애듯함과 그리움이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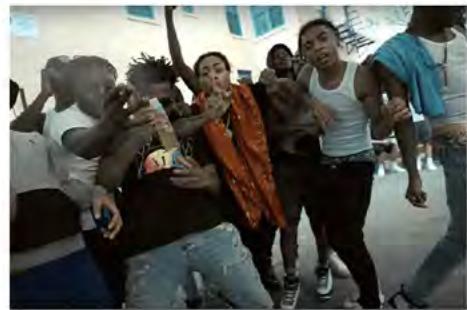




1
Pop Smoke
@realpopsmoke
1999 - 2020



3
Blase and Central Cee
@shinyoungduck
@centralcee



5
Bronx Drill
Kay Flock
@officialkayflocka



Evilgiane와 샘플 드릴

Editor SongChico

8
Evilgiane
@evilgiane

1 Drill(드릴)이라는 장르는 시카고에서 출발해 UK씬에 도착하고 2010년대 후반이 되고 나서야 Pop Smoke라는 스타의 탄생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역수입되는 과정을 거치며 엄청난 Hype를 받게 되었다.

2 긴 시간이 지난 후 2020년대의 힙합씬을 돌아본다면 2020년대의 초반은 ‘드릴이 지배했던 씬’으로 지목될지도 모르겠다.

3 국내/외 가릴 것 없이 Fivio Foreign, Central Cee, Ice Spice, 블라세, 플리키뱅, NSW Yoon 등 많은 래퍼들이 이 장르를 주 무대로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큰 인기를 끌었으니 말이다.

4 그러나 드릴은 타 장르와는 다른 특색있는 사운드가 무기이지만 이 점이 청자들에게 하여금 ‘거기서 거기’, ‘빨리 질린다’라는 감상을 주기도 한다.

5 (더 세부적인 장르로 들어가자면 뉴욕에 위치한 브롱크스 지역의 래퍼들이 추구하는 Bronx Drill이 존재하지만 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운드를 추구하는 장르이기에 ‘질린다’라는 단점은 이 쪽이 더 뚜렷하게 부각되는 편이다.)

6 이 단점들과 함께 Rage로 대표되는 힙합의 신생 장르들과 팬데믹이 끝난 이후 메인스트림에 자리 잡은 댄스 장르들이 치고 나오며 드릴씬은 현재 조금은 동력을 잃은 듯 보이고 있다.

7 그런데 이 드릴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낼 만한 적임자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했고 최근 들어서는 메이저 래퍼들에게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8 그 주인공은 뉴욕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크루 Surf Gang의 수장이자 프로듀서 이블지아니(Evilgiane)이다.



9
Surf Gang
@surfgang1



10
RealYungPhil
<Dr. Phil>
@realyungphil



15
A\$AP Rocky
Playboi Carti
@asaproky
@playboicarti



16
Cash Cobain
@cashcobain_2x

9 Surf Gang은 초창기 트랩의 하위 장르인 Plugg/PluggnB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이던 이들이었지만 드릴붐이 온 후로는 이들도 드릴씬에 뛰어들었다.

10 이때부터 드릴 장르에서 창의성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블지아니는 자신만의 새로운 드릴을 RealYungPhil과의 합작 앨범 <Dr. Phil>에서 완성했다.

11 이블지아니의 드릴 트랙들은 기존의 드릴 장르에서 발매된 곡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띠는데 어둡고 폭력적인 사운드도 아닐뿐더러 드릴의 상징과도 같은 ‘위이잉’ 거리는 베이스 글라이딩도 빠져있다, 대신 그 자리를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짧은 길이의 808 베이스와 적재적소에 활용된 소울/재즈 샘플이 채워주곤 한다.

12 바꿔 말하면 이블지아니의 드릴은 시끄럽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3 해외에서도 이 사운드를 정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Sample Drill(샘플드릴)이라 이름짓고 장르를 이끌어 가는 이로 이블지아니를 지목하였다.

14 최근 들어선 그와 한배를 탄 Surf Gang, 같이 합을 맞추었던 RealYungPhil외에도 걸출한 이름들이 이 장르를 시도하곤 했는데

15 A\$AP Rocky와 Playboi Carti의 스니펫 “\$ights/Our De\$tiny” Kendrick Lamar와 Baby Keem의 “The Hillbillies”, Earl Sweatshirt의 “Making The Band” 이 곡들이 샘플드릴 장르에 해당되며 모두 이블지아니가 프로듀싱한 곡들이다.

16 이블지아니 외에도 Central Cee, Lil Yachty, LUCKI등 다양한 래퍼들의 드릴 트랙들을 프로듀싱했던 Cash Cobain 또한 이 장르의 대표격되는 프로듀서중 한명이다.

17 드릴 장르가 진입장벽처럼 보이는 공격적인 분위기를 걷어낸 채 특유의 사운드만이 남아 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 간다면 오래도록 사랑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LECRITIC

HIPHOPLE's Own Metacritic

힙합엘리의 메타크리틱

Founded by 예림



Pink Tape
Lil Uzi Vert
Release: 2023 06 30
Length: 87:03
Tracks: 26
Record Label: Generation Now /Atlantic

Top Tracks
1 Nakamura (79.4%)
2 The End (44.1%)
3 Flood The Face (35.3%)
 Suicide Doors (35.3%)
5 Endless Fashion (32.4%)

User Score
60.4 / 100



Madvillainy
Madvillain
Release: 2004 03 23
Length: 45:22
Tracks: 22
Record Label: Stones Throw Records

Top Tracks
1 ALL CAPS (82.1%)
2 Accordion (59.0%)
3 Figaro (51.3%)
4 Meat Grinder (35.9%)
5 Raid (33.3%)

User Score
95.3 / 100



Yeezus
Kanye West
Release: 2013 06 18
Length: 40:01
Tracks: 10
Record Label: Roc-A-Fella

Top Tracks
1 New Slaves (79.2%)
2 Bound 2 (72.9%)
3 Black Skinhead (60.4%)
4 Blood On The Leaves (56.3%)
5 On Sight (54.2%)

User Score
89.1 / 100

자세한 평범 리뷰 및 트랙 리뷰는 링크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LECRITIC 시리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컨텐츠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ditor's Picks

Haus of Matters

UPDATED TODAY

▶ Play

🔀 Shuffle



Style

Taylor Swift

...



Summertime Magic

Childish Gambino

...



Nuggets (feat. Bonzai)

Mura Masa

...



Blackout

Method Man & Redman

...



Home

Dylan Sinclair

...



Touching Yourself

The Japanese House

...

8월 달 에디터스픽 플레이리스트는
아래의 QR 코드를 통해 애플뮤직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ditor's Note by SNXO



6 songs, 19 minutes



1989

Taylor Swift

Editor 온암

1 Welcome To New York	5 All You Had To Do Was Stay	9 Wildest Dreams
2 Blank Space	6 Shake It Off	10 How You Get the Girl
3 Style	7 I Wish You Would	11 This Love
4 Out of the Woods	8 Bad Blood	12 I Know Places
		13 Clean

컨트리의 공주가 팝의 여왕으로 거듭나다. 2010년대 대중음악계를 논할 때 이 앨범을 제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Red>에서 컨트리와 팝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는 팝의 땅에 확실히 발을 들였고, 그 선택은 지상 최대의 여성 팝스타를 탄생시켰다. Jack Antonoff와 Max Martin은 당대 최고의 팝 프로덕션을 준비했고, 나머지는 테일러의 몫이었다. 그리고 테일러는 그녀의 역할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잘해냈다. 소녀의 감성을 간직하고 있던 미성의 목소리에서 선명한 팝 보컬로 페르소나를 전환한 테일러는 개인적인 주제들을 위트 있는 표현과 함께 뻔하고도 뻔뻔하게 풀어나간다. 그녀만큼이나 대중성과 문학성 사이에서 아찔한 곡예를 하며 팬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팝 아티스트가 몇이나 될까? 클리셰적인 코드나 곡들의 유사한 전개, 그리고 "Shake It Off"와 "Bad Blood" 등 몰입을 방해하는 싱글 몇을 제외한다면 앨범은 몇 번이고 반복해 청취할 만큼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Summer Pack

Childish Gambino

Editor 45

1 Summertime Magic	2 Feels Like Summer
--------------------	---------------------

2018년 5월 6일 싱글 <This is America>로 인해 큰 호응을 얻은 뒤 약 2개월 만인 2018년 7월 11일 발표한 싱글 <Summer Pack>이며 트랙의 구성은 "Summertime Magic"과 "Feels Like Summer"로 이루어져 있다. <This is America>가 도발적이고 난해한 무드를 풍겼다면, <Summer Pack>은 보다 여름 속 호캉스같은 휴가의 이미지가 강한 싱글이다. 전작의 싱글과 달리 잔잔하고 여름 느낌이 많이 나는 사이키델릭한 앨범이지만, 차분함 속에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은 것이 매력인 앨범이다. 요즘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데 "Feels Like Summer" 속 '어제보다 더 뜨거워진다', '가뭄 문제가 심각하다'를 통해 기후변화가 더 심해진 올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 같다. 사운드도 스타일 팬과 각종 여름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로 구성한 "Summertime Magic", 전작 <Awaken, My Love!>에 여름향을 첨가한 "Feels Like Summer"까지 이지리스닝을 하기 좋은 구성으로 되어있으며 힙합팬이라면 다양한 힙합 이스터에그가 들어있는 "Feels Like Summer"의 뮤직비디오를 꼭 시청하길 바란다.

MURA MASA



Mura Masa Mura Masa

Editor SongChico

1 Messy Love	5 All Around The World	9 NOTHING ELSE!
2 Nuggets	6 give me The ground	10 helpline
3 Love\$ick	7 What If I Go?	11 Second 2 None
4 1 Night	8 Firefly	12 Who Is It Gonna Be
		13 Blu

영국의 프로듀서/DJ 무라 마사(Mura Masa)가 2017년에 발매한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UK씬의 전자음악 위에 힙합, R&B 등의 블랙뮤직을 적절히 올려 양 장르의 팬들에게 동시에 큰 사랑을 받은 앨범이다. Bonzai, NAO와 같은 교류가 잦던 아티스트들과 하이퍼팝 씬의 대표 아티스트 Charlie XCX, Desiigner, A\$AP Rocky와 같은 스타 아티스트들도 이 앨범에서 피쳐링 멤버로 힘을 보탰다. 위에 언급한 요소들도 이 앨범을 즐기기엔 충분하지만 이 앨범을 6년이 지난 지금 꺼내게 된 것은 PinkPantheress, Jorja Smith등 영국의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K-POP씬의 아티스트들까지 Drum and Bass, UK/2-Step Garage 등의 영국의 전자음악 장르의 곡들을 선보이며 UK씬의 전자음악들이 다시 전성기를 맞았고 이 장르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들에게 선뜻 추천하기에 친숙하고 낯익은 사운드를 들려줬기 때문이다.



Blackout!

Method Man & Redman

Editor ryuzimoto

1 A Special Joint (Intro)	7 Da Rockwilder	13 The ?
2 Blackout	8 Tear It Off	14 Dat's Dat Shit
3 Mi Casa	9 Where We At (Skit)	15 Cheka
4 Y.O.U.	10 1, 2, 1, 2	16 Fire in a HOle
5 4 Seasons	11 Maaad Crew	17 Well All Rite Cha
6 Cereal Killer	12 Run 4 Cover	18 Big Dogs
		19 How High (Remix)

"힙합 역사상 최고의 시너지를 보여준 듀오는 누굴까?"라는 질문에는 아마 많은 담론이 오갈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 없이 메소드 맨 & 레드맨(Method Man & Redman)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들은 95년 데뷔곡 "How High"발매를 기점으로 듀오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당시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기에 둘의 만남은 큰 기대를 받았는데 역시는 역시나였다. 1999년 발매한 <Blackout>은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었다. 특히 랩적인 면에서 완벽한 조인트를 보여주는데, 단단한 저음의 댐핑이 돋보이는 메소드 맨과 터프한 하이톤의 레드맨은 랩이 줄 수 있는 극강의 청각적 쾌감을 선사한다. 에릭 서먼(Erick Sermon)과 르자(RZA) 등으로 구성된 압도적인 프로듀서진의 비트 위에서 메소드 맨 앤 레드맨은 랩의 본질을 단 한순간도 알보지 않는 면모를 보여준다. 컬트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Da Rockwilder"와 엘엘 쿨 제이(LL Cool J), 자 룰(Ja Rule)이 힘을 보탠 "4Seasons"를 포함 앨범의 시작부터 끝까지 힙합이 가진 고유의 멋을 예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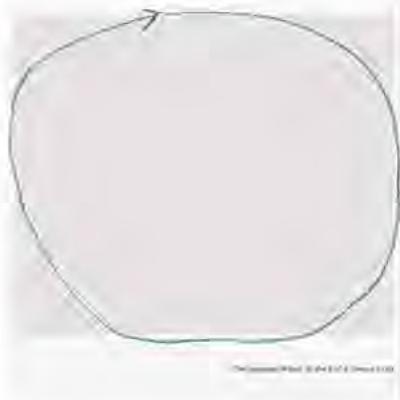
Proverb

Dylan Sinclair

Editor snxo

- | | |
|---------------------------|-------------------------|
| 1 Dropout | 5 Jericho |
| 2 Ask Me - Extended | 6 El-Shaddai/First Love |
| 3 Home | 7 Girl |
| 4 Intermission (Get Away) | 8 All I Need |

더 위켄드와 다니엘 시저를 뒤이을 토론토 출신의 01년생 R&B 라이징 스타가 나타났다. 프랭크 오션과 다니엘 시저, 그리고 가스펠 싱어 프레드 하몬드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는 딜런 싱클레어(Dylan Sinclair)는 불과 만 19살의 나이에 다니엘 시저의 <Freudian>에 참여한 토론토 프로듀서 Ace G와 손을 잡아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만의 <Freudian>, <Proverb>를 탄생시켰다. 5살부터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음악가의 꿈을 키웠다는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스펠과 알앤비 사운드를 적재적소에 섞으며 다니엘 시저의 뒤를 이을 얼터너티브 알앤비의 유망주로 거듭났다. 팝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노력했다는 그의 코멘트처럼 <Proverb>는 대중 친화적인, 흔히 말해 큰 인기를 끌만한 앨범은 아니다. 다만, 3번과 8번 트랙 "Home"과 "All I Need" 속 싱글레이어의 애틋한 감정선과 음색, 그리고 Ace G의 프로듀싱은 딜런 싱클레어라는 가수의 5년 뒤 커리어를 기대하게 만들기엔 충분하다.



Touching Yourself

The Japenese House

Editor 공ZA

- | | | |
|----------------------------|---------------------------|---------------------------------------|
| 1 Spot Dog | 5 Morning Pages | 8 Friends |
| 2 Touching Yourself | 6 Boyhood | 9 Sunshine Baby |
| 3 Sad to Breath | 7 Indexical reminder of a | 10 Baby goes again |
| 4 Over There | morning well spent | 11 You always get what you want |
| | | 12 One for sorrow, two for Joni Jones |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자신의 성별이나 출신으로 음악을 규정짓고 싶지 않았던 1인 밴드 더 재패니즈 하우스(The Japenese House)는 The 1975의 드러머 George Daniel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여정을 떠난다. 인트로에 들리는 신시사이저, 현악기, 피아노 사운드에 어우러지는 중성적인 그녀의 보컬이 열두 트랙 동안 펼쳐질 여행의 시작을 알린다. 때로 여행은 잔잔한 호수의 물결을 바라보는 것처럼 차분하게, 파도가 치는 해변에서 햇빛을 쬐는 것처럼 따스하게 다가온다. 이는 앞을 알 수 없는 자신을 향한 탐구의 과정을 엿보는 듯 하다. 어디로 도착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항상 그래왔듯이 진정한 나를 찾으러 떠나는 길을 더 재패니즈 하우스와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

dits

ver Design by snxo

Part 1

Recent Releases

Design by snxo

ATORS

2 - 45

burn - SongChico

ARING THE HOES: DLC Pack - 온암

ng High - 온암

Part 2

Reviews

Design by snxo

ATORS

ck Tape - 45

CHAEL - 온암

gic 2 - 온암

OPIA - 온암

Part 3

Featured Articles

Design by snxo

ATORS

한 리뷰: Breaking Atoms - ryuzimoto

금은 색다른 힙합 이야기

here The Hood At?) - ryuzimoto

ye West 알아보기 - snxo

giane와 샘플 드릴 - SongChico

CRITIC - 예림

Part 4

Editor's Picks

Design by snxo

ATORS

9 - 온암

mmer Pack - 45

ra Masa - SongChico

ckout! - ryuzimoto

verb - snxo

he End It Always Does - 공ZA

gazine Design by snxo

HAUS OF MATTERS

nded by BlackMatter

World HAUS OF MATTERS

ne 01

ust 2023

copyrights belong to the owners

New Members at K

SongChico

안녕하세요 'Way To Enjoy Music'이라는
슬로건 하에 음악과 관련된 이슈, 정보에 대

컨텐츠를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동하

있는 SongChico라고 합니다, w/Hom

통해서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

이어나가고 싶습니

Favourite Songs

Lil Peep - US

Favourite Album

PlayboiCarti - Die

ryuzimoto

Madlib의 얼티이고인 Quasimoto

저의 성을 합친 ryuzimoto라

활동명을 가진 2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음악계 쪽에서 일하고 있으

힙합과 귀여운 것을 사랑합니

이번에 좋은 인연으로 KHL

에디터로 합류한 만큼 지금까지

타 매거진들과 다르게 차별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도

하겠습니다. 담배

이온음료만 있다면 가능합니

Favourite Albums

Wu-Tang Clan - Enter the Wu-Ta

(36 Chamber)

GZA - Liquid Swo

Grimes - Art Ang

Favourite Arti

Cli

Pharrell Willia

을

힙합이 좋아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잡아먹으며 글을 썼더

어느새 KHL에게 납.. 캐스팅됐습니다 🎤 부족한 필력이자

w/HOM이 해외까지 진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거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Favourite Albums

Kanye West -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

The Notorious B.I.G. - Ready to

Lana Del Rey - Norman Fucking Rockw

Favourite Arti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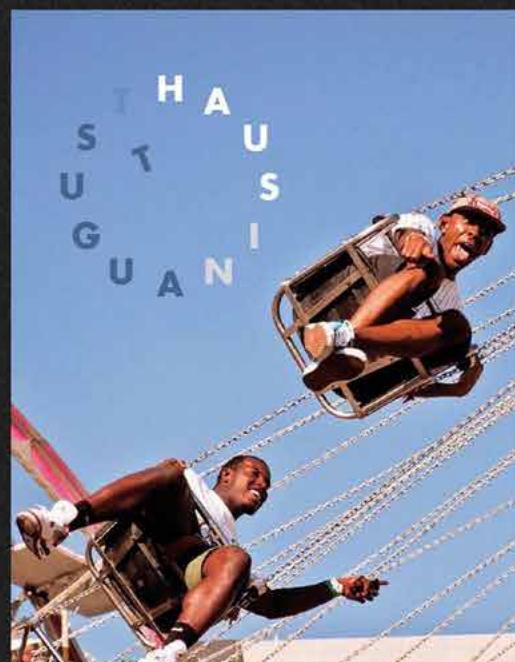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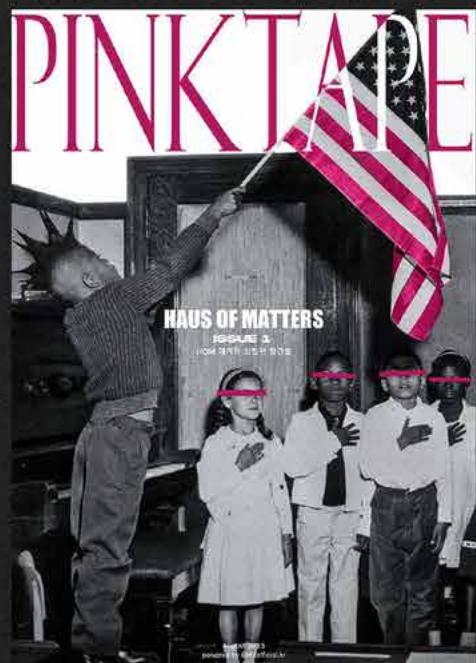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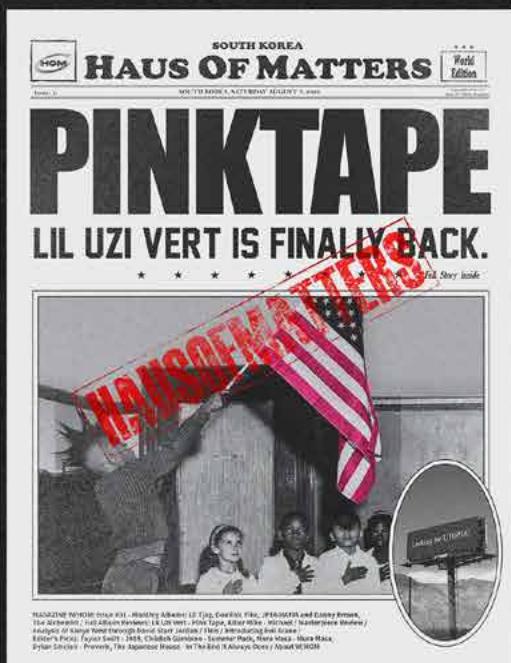
The Noto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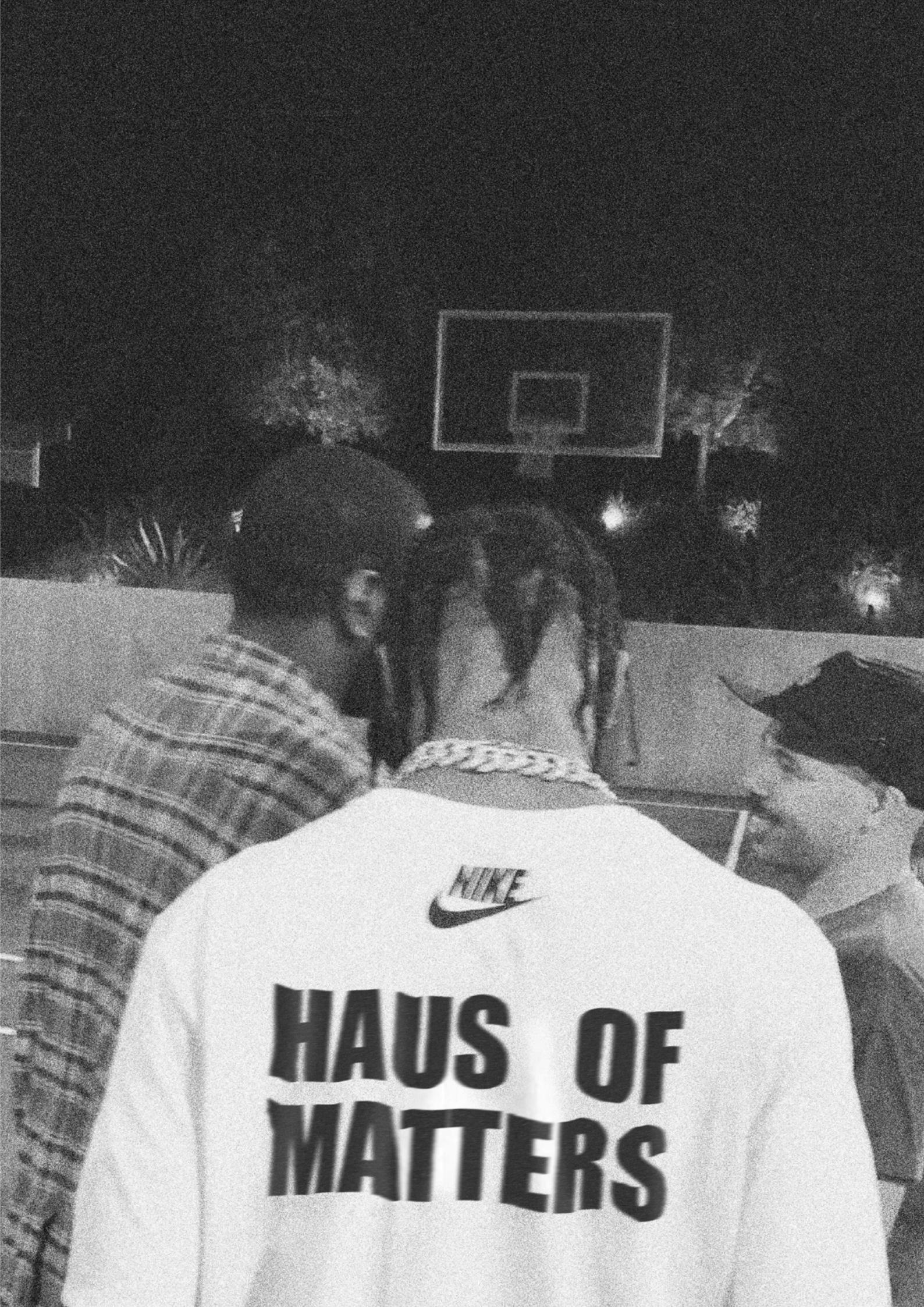
Lana Del

Denzel C

A\$AP Ro

Alternate Covers
미사용 표지들
by snxo





HAUS OF
MATTERS